

『東醫寶鑑』의 三丹田에 대한 精氣神 배속 考察

- 『仙經』의 인용문을 중심으로 -

慶熙大學校 大學院 基礎韓醫科學科¹ · 慶熙大學校 韓醫學科大學 原典學教室²
金範錫¹ · 白裕相² *

A Study on Assignment of Jeong-Gi-Sin to Three Danjeon in *Donguibogam*

Kim Beom-seok¹ · Baik Yousang² *

¹Dept. of Science in Korean Medicine, Graduate School, Kyung Hee University

²Dept. of Korean Medical Classics, College of Korean Medicine, Kyung Hee University

Objectives : The quotation of *Seongyeong* found in the chapter of danjeonyusam in *Donguibogam* uses a type of allocation of Gi(氣), Sin(神), and Jeong(精) each in Upper, Middle and Lower, three Danjeon, that is different from the type was widely accepted at the time. The paper attempts to interpret this in a new way.

Methods : The paper collected the understanding of Jeong-Gi-Sin found in the Korean medicine based on Naedan Theory of Taoism, and tried to approach and structurally analyze the contents of *Seongyeong*, *Ojinpyeonju*, and *Hwanggeuggyeongseseo* found in *Donguibogam*'s danjeonyusam.

Results : The control of the body by Gi stored in Upper Danjeon is related to brain function, control of Gi at Lower Danjeon which preserves Jeong in Kidney is related to proliferation of Original Qi from kidney region throughout the body by triple energizers. Sin located at Middle Danjeon is contrasted with Jeong in Lower Danjeon, and Sin controls activity of life in the part between body and Gi.

Conclusions : A new understanding on the assignment of Jeong-Gi-Sin in *Seongyeong* is possible, and it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future study of Korean Medicine and Taoism.

Key Words : *Donguibogam*(東醫寶鑑), Jeong-Gi-Sin(精氣神), Danjeon(丹田), Naedan(內丹), Taoism

* Corresponding Author : Baik Yousang.
Dept. of Medical Classics, College of Korean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Tel) 02-961-0326, E-mail : baikys@khu.ac.kr
Received(May 1, 2018), Revised(May 7, 2018), Accepted(May 9, 2018)

I. 序論

우리 몸 안에 流行하고 轉變하는 精氣神血과 津液 가운데 특히 『東醫寶鑑』에서는 도가의 전통을 받아들여 精氣神 三寶를 중시하였다. 도가에서 역사적으로 內丹學이 발달하면서 精氣神은 修鍊의 대상인 동시에 虛無와 自然으로 되돌아가기 위한 실천적인 목표가 되었다. 또한 內丹學의 발전 속에서 상중하의 三丹田 개념이 확립되었고 각각에 精氣神을 배속함으로써 그 의미와 역할이 보다 분명하게 인식되었다. 대체로 상중하 三丹田에 각각 순서대로 神, 氣, 精을 배속하는 것이 정설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東醫寶鑑』의 「丹田有三」에 나오는 『仙經』의 인용문에서는 이와 달리 상중하 각각에 氣, 神, 精이 배속되어 있다고 기술하여 일반적인 배치와 차이가 있다.

이에 대한 국내 연구자들의 견해를 살펴보면, 단순한 誤記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있으며¹⁾, 『東醫寶鑑』이 道家書가 아니라 醫書이므로 『黃帝內經』의 관점을 충실히 따라서 心藏神의 의미로서 배속하였다는 주장이 다수 있었다²⁾³⁾⁴⁾. 중국의 관련 연구에서는 『仙經』의 精氣神 배속에 대한 문제인식이 거의 없으며⁵⁾ 단, 孫亦平이 『仙經』의 배속이 일반적인 道教 內丹學의 그것과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⁶⁾ 그 이유로서 의학적 관점으로 道教 內丹學을 흡수한 때문이 아닌가 추정하였을 뿐이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도가 內丹學의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仙經』의 精氣神 배속이 일반적인 도가의 精氣神 배속과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고, 『東醫

寶鑑』 「丹田有三」의 전체적인 구성 속에서 상중하 三丹田에 대한 精氣神의 배속뿐만 아니라 각각의 역할에 대하여 새로운 해석을 시도해 보았다.

이러한 시도의 결과가 향후 『東醫寶鑑』의 精氣神 개념에 대한 연구나 도가의 內丹學 연구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는 알 수 없으나 좁게 보면 『東醫寶鑑』 「丹田有三」篇의 구조적인 내용 분석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II. 本論

1. 『東醫寶鑑』의 三丹田 精氣神 배속

『東醫寶鑑』의 「丹田有三」에는 다음과 같이 상중하 三丹田에 대한 精氣神의 배속이 나온다.

仙經曰腦爲髓海上丹田, 心爲絳宮中丹田, 臍下三寸爲下丹田. 下丹田藏精之府也, 中丹田藏神之府也, 上丹田藏氣之府也.[丹田有三]⁷⁾

여기서 『仙經』은 일반적으로 도가 문헌의 범칭으로 쓰이기도 하나 또한 지금은 亡佚된 도가 서적 중 하나를 가리킨다⁸⁾. 魏晉 시대 이래로 『抱朴子內篇』(葛洪 東晉), 『養生延命錄』(陶弘景 南朝), 『大丹直指』(邱處機 金元), 『三元延壽參贊書』(李鵬飛 1292) 등에서 『仙經』을 인용하고 있는데⁹⁾, 三國 魏晉 시기에 여러 方術들을 종합하여 저작한 것으로서 저자는 三國 시대의 左慈로 추정되고 있다.

『仙經』에서 인용한 「丹田有三」의 부분이 이미 다른 문헌에 기재되었던 것을 재인용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현재까지 『東醫寶鑑』 이전의 문헌 가운데 동일한 내용이 기재된 것은 없는데, 진주표는 이에 대하여 『道書全集』¹⁰⁾ 속의 『羣仙珠玉集』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였으나¹¹⁾ 정확히 동일한 문장은 보이

1) 진주표. 三丹田의 精氣神 배치를 고찰하여 유추해 본 韓醫學의 整體性-道家 性命論과 儒家 魂魄說을 중심으로(新增補對譯東醫寶鑑). 서울. 法仁文化社. 2017. p.2602.
2) 朴炳洙. 조선시대 道教 精氣神論의 전개양상. 도교문화연구. 1996. 10. pp.358-359.
3) 成昊俊. 東醫寶鑑의 철학적 연구-儒學과 道教사상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대학원. 2001. pp.117-119.
4) 金洙佚. 精氣神과 三丹田에 關한 研究-人體上 相互 配置 問題를 中心으로. 도교문화연구. 2009. 11. pp.300-301, p.305.
5) 車武. 許浚『東醫寶鑑』의理論價值及其影響研究. 中央民族大學大學院. 2011. p.109.
6) 孫亦平. 從『東醫寶鑑』看道教養生論對東醫學的影響. 宗教學研究. 2015. 34(3). pp.25-26.

7) 許浚. 新增補對譯東醫寶鑑. 서울. 法仁文化社. 2017. p.192.
8) 王家葵. 仙經考略. 宗教學研究. 1997. 16(2). pp.53-56.
9) 기타 『本草經集註』, 『海藥本草』, 『雲笈七籤』, 『太平御覽』 등 다수의 문헌에도 인용되어 있다.
10) 『道書全集』 속에 金丹正理大全이 포함되어 있다.
11) 진주표. 三丹田의 精氣神 배치를 고찰하여 유추해 본 韓醫學의 整體性-道家 性命論과 儒家 魂魄說을 중심으로(新增補對譯東醫寶鑑).

지 않는다.

한편, 『東醫寶鑑』에는 또 다른 精氣神의 三丹田 배속 내용이 「頭爲天谷以藏神」에 나온다. 이 부분은 『道書全集』에 포함된 『羣仙珠玉集』에서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谷者, 天谷也. 神者, 一身之元神也. 天之谷, 含造化, 容虛空, 地之谷, 容萬物, 載山川. 人與天地同所稟, 亦有谷焉. 其谷藏眞, 一宅元神, 是以頭有九宮, 上應九天, 中間一宮, 謂之泥丸. 又曰黃庭, 又名崑崙, 又謂天谷, 其名頗多, 乃元神所住之宮. 其空如谷而神居之, 故謂之谷神, 神存則生, 神去則死, 日則接於物, 夜則接於夢, 神不能安其居也.

黃帝內經曰天谷, 元神守之, 自眞言人身中, 上有天谷泥丸, 藏神之府也, 中有應谷絳宮, 藏氣之府也, 下有虛谷關元, 藏精之府也. 天谷, 元宮也, 乃元神之室, 靈性之所存, 是神之要也.<正理>[頭爲天谷以藏神]¹²⁾

『仙經』에서 상중하의 三丹田 각각에 순서대로 氣, 神, 精이 배속되어 있는 반면에 『羣仙珠玉集』에서는 각각에 神, 氣, 精이 배속되어 있어서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¹³⁾. 일반적으로 도가의 內丹書에서는 대부분 후자를 따르고 있다.

2. 道家의 三丹田과 精氣神

전통적으로 도가에서 三丹田에 대하여 精氣神 각각을 어떻게 배속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도가의 內丹學이 형성되는 초기에는 이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지는 않았다.

1) 精氣神의 상호 관계의 형성

內丹修練에서 精氣神을 三寶로서 중시하기 이전의 도가 형성 초기에는 精, 神, 氣, 形 등의 상호 관계들이 단편적으로 여러 문헌에서 언급되어 왔다. 예를 들어 『呂氏春秋·盡數』에서는, 精이 氣처럼 모였

다가 다시 흘러서 유행하니, 만약 形이 움직이지 않으면 精이 흐르지 못하고 精이 흐르지 못하면 氣가鬱한다고 하였다¹⁴⁾. 『淮南子』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形과 神¹⁵⁾, 그리고 氣¹⁶⁾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또한 『太平經合校』에서는 神과 氣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데¹⁷⁾, 神이 氣를 타고 行하며 神과 氣의 작용에 의하여 사람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후 精氣神을 통합하여 처음으로 부른 명칭은 『上清靈寶大法』에 나오는 ‘三奇’로 보이며¹⁸⁾, 內丹術이 크게 발달한 이후의 『雲笈七籤』(1019)에서는 精은 몸의 뿌리와 같아서 氣를 자리 잡게 만들고 氣가 온전하게 되면 神도 따라서 온전하게 된다고 하여, 精氣神의 상호 관계를 보다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¹⁹⁾.

- 14) 呂不韋. 呂氏春秋(諸子集成6). 上海. 上海書店. 1986. p.26. : 精氣之集也, 必有入也. 集於羽鳥與爲飛揚, 集於走獸與爲流行, 集於珠玉與爲精朗, 集於樹木與爲茂長, 集於聖人與爲夙明. 精氣之來也, 因輕而揚之, 因走而行之, 因美而良之, 因長而養之, 因智而明之. 流水不腐, 戶樞不蠹, 動也. 形氣亦然, 形不動則精不流, 精不流則氣鬱.
- 15) 劉安. 淮南子.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9. p.16. : 故以神爲主者, 形從而利, 以形爲制者, 神從而害.
- 16) 劉安. 淮南子.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9. p.16. : 夫精神氣志者, 靜而日充者以壯, 躁而日耗者以老.
- 17) 王明. 太平經合校(上冊). 北京. 中華書局. 1960. p.96. : 凡事人神者, 皆受之於天氣, 天氣者, 受之於元氣, 神者, 乘氣而行, 故人有氣則有神, 有神則有氣, 神去則氣絕, 氣亡則神去. 故無神亦死, 無氣亦死, 委氣神人寧入人腹中不邪. 唯唯.
- 18) 朴炳洙. 조선시대 道教 精氣神論의 전개양상. 도교문화연구. 1996. 10. p.342.
- 19) 張君房. 雲笈七籤(3). 北京. 中華書局. 2003. pp.1296-1297. : 道, 氣也. 氣者, 身之根也. 魚離水必死, 人失道豈存. 是以保生者, 務修於氣, 愛氣者, 務保於精, 精氣兩存, 是名保眞也. 人有三丹田, 上元, 中元, 下元, 是也. 上元丹田, 腦也, 亦名泥丸. 中元丹田, 心也, 亦名絳宮. 下元丹田, 氣海也, 亦名精門. 三元之中, 各有一神.[桑榆子曰精化爲氣, 氣化而神集焉. 神, 何物也. 靈照之名也, 知之則氣全, 氣全則神全. 若元氣充滿, 百骸孔竅神必備矣. 未備者無他, 氣至則神到. 今人有憂患動中, 則知見因而暫虧, 蓋氣權有不至者耳. 苟心冥氣和, 其神豈獨三元之中而已哉.] 精者, 身之根, 根者, 氣之位. 精全則氣全, 精泄則氣泄, 氣泄則神乘而去之, 唯精與氣須全. 黃庭經云, 長生至慎房中急, 何爲死作靈神位. 但當吸氣錄子精, 寸田尺宅可治生. 若當決海百瀆傾, 葉去樹枯失青青. 故先覺至於道者, 莫不因愛氣保精而能全也.

增補對譯東醫寶鑑). 서울. 法仁文化社. 2017. p.2602.
 12) 道書全集(海玉邨古籍叢刊). 北京. 中國書店. 1990. p.519.
 13) 許浚. 新增補對譯東醫寶鑑. 서울. 法仁文化社. 2017. p.455. : 『東醫寶鑑』의 「三尸蟲」에서도 “上田乃元神所居之宮”이라 하였다.

2) 內丹修練과 丹田 개념의 성립

道敎에서는 煉養을 중시하는데 煉은 精과 氣를 단련하는 것이고 養은 性과 神을 기르는 것을 말한다. 이 가운데 精과 氣를 단련하는 것이 주로 丹田과 관련되어 있다. 丹田이라는 용어가 가장 처음으로 출현한 것은 165년에 저작된 邊韶의 『老子銘』에서 “存想丹田”이라고 한 것이다²⁰⁾. 精氣神의 개념과 內丹사상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悟眞篇集註』의 陳致虛 序文에서는 “其用則精氣神, 其名則云金丹.”라고 하여²¹⁾ 精氣神이 서로 전환되면서 변화하지만[用] 결국은 몸 안에 형성되는 金丹을 지향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丹田은 下焦에 위치한 下丹田만을 가리키기도 하는데, 이곳에서 煉丹하여 神을 이루는 것이 도가 수련이 기본 개념이다. 五斗米道에서 비밀리에 전수되어 내려온 『老子想爾注』에서는 양생의 중요한 방법으로서 結精成神을 중시하였다²²⁾. 이때 바로 下丹田에 의식을 집중시키는 것이다. 즉, 『老子想爾注』에서는 『老子』의 “谷神不死, 是謂玄牡.”에 대하여 “結精爲神, 欲令神不死, 當結精自守.”²³⁾라고 하였고, “持而滿之, 不若其己, 揣而悅之, 不可長寶.”에 대해서는 ‘結精成神’과 함께 ‘還精補腦’를 언급함으로써²⁴⁾ 內丹術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였다.

역사적으로 보면, 東漢과 三國 시대에 『周易參同契』, 『老子河上公注』 등이 저작되어 도가의 氣功養生學이 발전하였고, 이어서 魏晉南北朝 시대에는 葛洪이 『抱朴子內篇』을 지어서 秦漢 이래 養生修練術을 체계적으로 융합하였으며, 魏華存은 『黃庭經』을 전하였고 『養性延命錄』을 저술한 陶弘景은 이 시기 최고의 도가 학자로 추존되었다. 또한 이 시기에 접

차로 符籙呪法の 天師道와 存思守神의 上清派가 나타나서 후자가 內丹修練을 주도하였다. 唐末五代에 이르러 築基, 煉精化氣, 煉氣化神, 煉神還虛의 4단계 수련법이 갖추어졌고, 宋元 시대에는 性을 神에, 命을 精과 氣에 연결시키면서 內丹의 南宗, 北宗이 분화 발달하고 이를 결합한 陳致虛의 性命雙修法이 나타나게 되었다.

3) 逆修返源과 三丹田의 성립

도가에서는 만물이 眞元一氣에서 시작하여 분화하여 형체를 이루는 것을 順이라고 하였고, 반대로 만물이 三으로 모아지고 다시 최종적으로 一로 되돌아가는 것을 逆이라고 하였다²⁵⁾. 예를 들어 『太平經』에서는 혼돈의 元氣에서 精이 생겨나고, 精은 神을 생겨나게 하며, 神은 明을 지니게 된다고 인식하였다²⁶⁾. 元代 陳致虛의 『上陽子金丹大要上藥精氣神說下』에서는 順과 逆을 설명하면서 虛로부터 시작하여 精과 形을 만들어내는 것이 곧 順이며, 煉精化氣하고 煉氣合神하여 궁극적으로 虛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逆이고 이것이 곧 金丹을 이루는 것이라고 하였다²⁷⁾. 이때 金丹을 이루는 逆의 과정을 특히 逆修返源이라 한다. 또한 順逆의 과정이 3단계로 나누어지는 것을 順逆三關이라 하는데²⁸⁾, 『性命圭旨·元集』(1615)에서 三關의 逆修返源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

25) 許浚. 新增補對譯東醫寶鑑. 서울. 法仁文化社. 2017. p.206. : 『東醫寶鑑』의 ‘先腎格言’에는 ‘東垣省言箴’을 인용하여 順逆을 통합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積氣以成精’과 ‘積精以全神’이 이를 의미한다. “氣乃神之祖, 精乃氣之子, 氣者, 精神之根蒂也, 大矣哉, 積氣以成精, 積精以全神, 必清必靜, 御之以道, 可以爲天人矣. 有道者, 能之乎, 何人哉, 切宜省言而已.”

26) 成昊俊. 東醫寶鑑의 철학적 연구-儒學과 道敎사상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대학원. 2001. p.24.

27) 陳致虛. 上陽子金丹大要上藥. 漢リボ Kanseki Repository. 2016 [cited on April 20, 2018]: Available from: <https://www.kanripo.org/text/KR5d0090/004?query=%E9%A0%86%E5%89%87%E6%88%90%E4%BA%BA#004-007b> : 是以三物相感, 順則成人, 逆則生丹. 何謂順. 一生二, 二生三, 三生萬物, 故虛化神, 神化氣, 氣化精, 精化形, 形乃成人. 何謂逆. 萬物含三, 三歸二, 二歸一. 知此道者, 怡神守形, 養形煉精, 積精化氣, 煉氣合神, 煉神還虛, 金丹乃成.

28) 이원국 저, 김낙필 외 역. 내단. 서울.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06. p.105.

20) 于智敏. 丹田名實考. 中國中醫基礎醫學雜誌. 2013. 19(1). p.6.

21) 陳致虛 외. 悟眞篇集三註合刊. 臺北. 自由出版社. 1962. p.10.

22) 이원국 저, 김낙필 외 역. 내단. 서울.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06. p.261, 264.

23) 饒宗頤. 老子想爾注校證.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1. p.9.

24) 饒宗頤. 老子想爾注校證.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1. p.11. : 道敎人結精成神, 今世間偽詐稱道, 託黃帝, 玄女, 龔子, 容成之文, 相敎從女不施. 思還精補腦, 心神不一, 失其所守, 爲拙悅, 不可長寶, 若, 如也, 不如直自然如也.

고 있다²⁹⁾.

상중하 三丹田의 형성은 順逆三關의 과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三丹田의 정확한 위치는 역사적으로 분분하였으나 그 의미는 큰 차이가 없다. 上丹田 泥丸宮은 煉精化氣를 통하여 還精補腦하는 곳이며, 煉氣化神을 통하여 陽神이 상승하는 곳이기도 하다. 中丹田은 인체의 중심으로서 元始의 祖氣를 저장하는 곳이며³⁰⁾, 下丹田은 배꼽 아래에 위치하여 ‘性命之祖’ 또는 ‘生氣之源’으로도 불리운다.

또한 丹田을 몸 안의 金丹을 修鍊하는 술(鼎)과 화로(爐)에 비유하는데 이는 外丹에서 가져온 비유이다. 煉精化氣 과정에서 下丹田을 화로로 삼아 泥丸宮에 술이 걸려있는 양상을 大鼎爐라고 하고, 煉氣化神 과정에서 中丹田에 술을 걸고 아래의 下丹田을 화로로 삼는 것을 小鼎爐라고 한다. 이때 大鼎爐의 단련을 小周天이라 하고 小鼎爐의 단련을 大周天이라 한다. 이미 이른 시기의 『抱朴子內篇地眞』(葛洪 東晉)에서 三丹田의 위치를 자세히 설명하였고³¹⁾, 『黃庭經』에서도 “腦神經根字泥丸”이라 하여 上丹田인 泥丸宮을 언급하고 있다. 元代 蕭廷芝의 『金丹大成』에서는 몸 전면의 三丹田과 背後의 三關을 대비하여 설명하기도 하였다³²⁾.

4) 三丹田의 精氣神 배속

도가 문헌 가운데 상중하의 三丹田에 각각 精氣神을 배속하는 것에 대하여 직접적인 언급은 많지 않으며 배속에 대한 설명도 조금씩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宋代 曾慥의 『道樞』에서는 神이 三丹田의 三宮에 모두 있으면서 精은 下丹田에 위치하는 것으로 표현하였다³³⁾. 『雲笈七籤』에서도 상중하 三元에 모두 元神이 있다고 하였다³⁴⁾. 한편 『道樞』에서는 동시에 元神이 上丹田인 泥丸宮에 깃든다고도 설명하고 있다³⁵⁾. 앞에서 설명한대로 『道書全集』 가운데 『金丹正理大全』에 포함된 『羣仙珠玉集』에는 상중하 三丹田 각각에 순서대로 神, 氣, 精이 배속되어 있는데, 아마도 金丹사상이 발전하고 精氣神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三丹田에 대한 구체적인 배속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또한 『東醫寶鑑』에서 『仙經』을 인용하여 상중하 三丹田에 각각 氣, 神, 精을 배속한 것은 일부 醫書를 제외하고는 도가 문헌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즉, 이러한 배속은 도가의 일반적 관점에서 벗어나 있음을 알 수 있다.

3. 『東醫寶鑑』 「丹田有三」의 精氣神 배속에 대한 해석

1) 기존 주장에 대한 검토

앞에서 설명한대로 상중하 三丹田에 순서대로 각

29) 李建章. 性命圭旨白話解. 北京. 人民體育出版社. 1993. p.99. : 初關煉精化氣者, 要識天癸生時, 急急采之. 采時須以徘徊之意, 引火逼金, 所謂火逼金行顛倒轉, 自然鼎內大丹凝. 中關煉氣化神者, 乘此火力熾盛, 駕動河車, 自太玄關逆流至天谷穴, 氣與神合, 然後下降黃房, 所謂乾坤交媾罷, 一點落黃庭, 上關煉神還虛者, 守一抱元, 以神歸於昆虛性海.

30) 이원국 저, 김낙필 외 역. 내단. 서울.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06. p.175.

31) 王明. 抱朴子內篇校釋. 北京. 中華書局. 1986. p.323. : 故仙經曰, 子欲長生, 守一當明, 思一至飢, 一與之糧, 思一至渴, 一與之漿. 一有姓字服色, 男長九分, 女長六分, 或在臍下二寸四分下丹田中, 或在心下經宮金闕中丹田也, 或在人兩眉間, 卻行一寸爲明堂, 二寸爲洞房, 三寸爲上丹田也. 此乃是道家所重, 世世歎血口傳其姓名耳.

32) 蕭廷芝. 金丹大成. 漢リボ Kanseki Repository. 2016 [cited on April 20, 2018]: Available from: <https://www.kanripo.org/text/KR5a0265/002?query=%E5%BF%83%E7%88%B2%E4%B8%AD%E7%94%B0#002-006b> : 問曰何謂三田. 答曰腦爲上田, 心爲中田, 氣海爲下田. 若得斗柄之機, 輪運則上下循環, 如天河之流轉也. 問曰背後三關. 答曰腦後曰玉枕關, 夾脊曰轆轤關, 水火際曰尾閭關.

33) 曾慥. 道樞.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0. p.281. : 身有丹田者三, 何謂也. 腦者, 上丹田也, 心者, 中丹田也, 氣海, 精門者, 下丹田也. 三宮各有神焉, 神馳則氣漏, 氣漏則精泄, 精泄則神喪. 故精者, 長生之根也, 腎者, 命之根也. 譬之木焉, 無精則葉萎, 葉萎則枝朽, 枝朽則木枯矣.

34) 張君房. 雲笈七籤(3). 北京. 中華書局. 2003. pp.1296-1297. : 道, 氣也. 氣者, 身之根也. 魚離水必死, 人失道豈存. 是以保生者, 務修於氣, 愛氣者, 務保於精, 精氣兩存, 是名保真也. 人有三丹田, 上元, 中元, 下元是也. 上元丹田, 腦也, 亦名泥丸. 中元丹田, 心也, 亦名絳宮. 下元丹田, 氣海也, 亦名精門. 三元之中, 各有一神.

張君房. 雲笈七籤(1). 北京. 中華書局. 2003. p.342. : 上元神字威成子, 中元神字中黃子, 下元神字明光子, 一云字命光.

35) 曾慥. 道樞.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0. p.86. : 天谷者, 泥丸之宮也. 上赤下玄, 左青右白, 其中有黃焉, 斯元神之府也, 谷神眞一之至靈者也. 其爲吾之性歟, 而心爲其用焉. 神靜則萬化安, 情動則萬化生. 夫能守其一, 守其神, 神斯靜矣, 然後眞一者在于天焉.

각 氣, 神, 精을 배속한 것은 도가의 일반적 관점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다. 따라서 진주표는 이는 단순한 誤記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으며³⁶⁾ 이러한 주장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만약 『仙經』의 문장을 『東醫寶鑑』으로 옮겨 적는 과정의 誤記라면 한두 글자의 탈락이나 추가가 있을 수 있으나, 지금의 문장처럼 전후의 神과 氣가 서로 뒤바뀌는 쉽지 않다. 그러므로 원래 『仙經』의 원문이 현재 내용과 달랐다면 수정 과정에 어떠한 의도가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참고로 진주표는 한국 도가의 內丹 사상에서는 오히려 상중하 三丹田에 각각, 神, 精, 氣를 배속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한국 도가의 특성을 설명한 것으로 본 논문의 주제와는 상관이 없다.

이 문제에 대하여 朴炳洙는 이미 ‘조선시대 道教 精氣神論의 전개양상’(1996)에서, 醫學에서는 五臟이나 신체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정신활동의 출처를 心에서 통괄한다는 『黃帝內經』의 관점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결과라고 보았다³⁷⁾.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氣를 上丹田에 배속한 것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또한 成昊俊은 이러한 배속이 心藏神의 관념과 통할 것으로 추정하였는데³⁸⁾, 이 문제를 체계적으로 고찰하지 않고 단지 주석의 부분에서 상호 차이가 어떠한 이유인지 알 수 없다고 전제하면서 본인의 추정을 분명하게 제시하지 않고 있다³⁹⁾.

金洙佚은 ‘精氣神과 三丹田에 관한 研究’(2009)에서, 『黃帝內經』에서 상중하 三丹田에 각각 氣, 神,

精을 배속한 것에 대하여 이어지는 邵康節의 문장과 비교하여 形, 氣의 배치는 논란이 있으나 단지 中丹田의 心 배치만은 공통된다고 지적하였을 뿐이다⁴⁰⁾. 또한 醫書 가운데 이와 유사한 문장으로서 『類經』에서 心의 神이 精과 氣를 통제한다고 한 것⁴¹⁾ 등과 연결시켜 보았으나⁴²⁾, 더 이상의 추가 분석은 하지 못하였다.

또한 최근 중국의 孫亦平은 단지 의학적 관점으로 道教 內丹學을 흡수한 것으로 보았고⁴³⁾, 심도 있는 분석과 결론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이상의 의견들을 종합해 보면, 『東醫寶鑑』에 나오는 『仙經』의 精氣神 배속에 대하여 단순한 誤記로 보거나, 해당 문장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하여 精氣神 배속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中丹田의 心과 神의 관계에만 주목하고 있으며 이를 『黃帝內經』의 心藏神 이론과 결부시키고 있는데, 이는 『東醫寶鑑』이 道家書가 아니라 醫書라고 하는 단순한 근거에 기반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

따라서 한의학의 臟腑論 및 精氣神血論에 입각하여 보다 심도 있는 분석과 재해석이 필요한데 기존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접근이 부족하였다. 또한 中丹田의 배속뿐만 아니라 上丹田 및 下丹田의 배속과 함께 精氣神 배치를 종합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2) 새로운 해석의 제시

『東醫寶鑑』의 편집 방식은 여러 문헌 가운데 필요한 부분을 발췌하여 하나의 항목으로 묶어서 재구성하는 것으로, 그 과정에서 편집자의 의도에 따라 어느 정도 일관된 구조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丹

36) 진주표. 三丹田의 精氣神 배치를 고찰하여 유추해 본 韓醫學의 整體性-道家 性命論과 儒家 魂魄說을 중심으로(新增補對譯東醫寶鑑). 서울. 法仁文化社. 2017. p.2602.

37) 朴炳洙. 조선시대 道教 精氣神論의 전개양상. 도교문화연구. 1996. 10. pp.358-359.

38) 成昊俊. 東醫寶鑑의 철학적 연구-儒學과 道教사상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대학원. 2001. pp.117-118.

39) 成昊俊. 東醫寶鑑의 철학적 연구-儒學과 道教사상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대학원. 2001. p.119. : 또한 成昊俊은 醫學이 形質의 변화를 좇아 診治를 우선으로 하므로 『東醫寶鑑』에서는 先天보다는 後天의 精氣神을 많이 언급하였다고 보았는데, 이는 張伯端的 『金丹四百字序』에서 精氣神을 先天과 後天으로 구분하여 본 것에 따라 설명한 것으로 三丹田의 精氣神 배속과는 상관이 없다.

40) 金洙佚. 精氣神과 三丹田에 관한 研究-人體上 相互 配置 問題를 中心으로. 도교문화연구. 2009. 11. pp.300-301.

41) 張介賓. 懸壺註釋類經. 서울. 法仁文化社. 2006. p.36. : 陰陽應象大論曰精化爲氣. 故先天之氣, 氣化爲精, 後天之氣, 精化爲氣, 精之與氣, 本自互生, 精氣既足, 神自王矣. 雖神由精氣而生, 然所以統馭精氣而爲運用之主者, 則又在吾心之神, 三者合一, 可言道矣.

42) 金洙佚. 精氣神과 三丹田에 관한 研究-人體上 相互 配置 問題를 中心으로. 도교문화연구. 2009. 11. p.305.

43) 孫亦平. 從『東醫寶鑑』看道教養生論對東醫學的影響. 宗教學研究. 2015. 34(3). pp.25-26.

田有三」편도 전체적인 구성을 염두에 두면서 내용의 의미를 파악해야 한다.

(1) 『悟眞篇註』와 『皇極經世書』의 인용문 비교
 『東醫寶鑑』 「丹田有三」에서 『仙經』을 인용하여 精氣神 각각의 위치를 설명하였고 이어서 『悟眞篇註』를 다시 인용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悟眞篇註曰人之一身，稟天地之秀氣而有生，託陰陽陶鑄而成形，故一身之中以精氣神爲主，神生於氣，氣生於精，故修真之士，若執己身而修之，無過煉治精氣神三物已.[丹田有三]⁴⁴⁾

사람의 몸은 天地의 빼어난 氣를 품부 받아서 태어나고 陰陽의 변화에 의탁하여 形을 이루게 되며, 이후의 삶 속에서는 다시 精氣神을 위주로 煉治하여 닦아나간다고 하였다. 이때 煉治의 과정이 바로 陳致虛가 『上陽子金丹大要上藥』에서 말한 逆의 과정으로 煉精化氣하고 煉氣合神하여 궁극적으로 虛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니 逆修返源에 해당하며, 『老子想爾注』에서 궁극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結精成神과도 의미가 같다. 『悟眞篇註』의 인용문에서 중요한 것은 처음에 氣와 形을 먼저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이후에 이어지는 邵康節의 『皇極經世書』 내용 중에서 바로 神, 氣, 形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邵康節의 인용문은 다음과 같다.

邵康節曰神統於心，氣統於腎，形統於首，形氣交而神主乎其中，三才之道也.[丹田有三]⁴⁵⁾

이 문장은 『皇極經世書』(11C말)에서 가져온 것이며 이후 『圖書編』, 『醫旨緒餘』, 『性理大全』, 『皇王大紀』, 『易外別傳』 등의 다양한 문헌에서 인용되었다. 形과 氣를 각각 상하의 축으로 삼고 양자가 교감하는 중앙에서 神이 주재하는 것이 바로 三才의 道라

는 설명이다. 상하의 축이 되는 形과 氣는 바로 앞에 나오는 『悟眞篇註』의 인용문에서 사람의 몸이 氣를 품부받아 形을 이루게 된 것과 관련이 있으며, 形과 氣가 교감하는 가운데에서 주재하는 神은 또한 『悟眞篇註』에서 말한 精-氣-神 순서의 逆修返源 煉治 과정의 최종 단계를 의미한다. 따라서 『東醫寶鑑』 「丹田有三」편에서 『悟眞篇註』와 『皇極經世書』의 두 인용문을 선택하여 차례대로 배치한 데에는 어떠한 의도가 있다고 충분히 추정할 수 있다.

만약 이와 같이 『東醫寶鑑』의 「丹田有三」을 구성하는 인용문들이 정교하게 배치된 것이라 가정한다면, 『仙經』의 三丹田에 대한 精氣神 배속 내용도 이러한 구성 속에서 그 의미를 재해석하여야 한다.

(2) 『仙經』의 精氣神 배속에 대한 재해석

『東醫寶鑑』의 「丹田有三」편의 내용 가운데 인체의 상중하 구도로 설명한 것은 『仙經』과 『皇極經世書』의 인용문이다.

『仙經』과 『皇極經世書』의 내용을 상중하의 구도로 나누어 결합시켜 보면, 上丹田에는 氣가 갈무리되는데 여기[首]에서 形을 통제하며, 下丹田에는 精이 갈무리되는데 여기[腎]에서 氣를 통제하며, 中丹田에는 神이 갈무리되는데 여기[心]에서 다시 神을 통제하게 된다. 이를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Table 1. Assignment of Three Danjeon in 'Dong-uibogam' 「Danjeonyusam」

三丹田	上丹田	中丹田	下丹田
위치	髓海[腦]	絳宮[心]	臍下三寸
精氣神	氣	神	精
主宰者	首	心	腎
神氣形	形	神	氣

우선 上丹田에서 形을 통제하기 위한 氣와 下丹田에서 통제되는 氣의 의미를 구분해서 보아야 한다. 『皇極經世書』에서 三才之道를 언급한 전후 맥락을 살펴보면 인체 각 부분의 구성과 역할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여기에는 의학적 관점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腎에서 氣를 통제한다는 것을

44) 許浚. 新增補對譯東醫寶鑑. 서울. 法仁文化社. 2017. p.192.
 45) 邵康節. 皇極經世書. 諸子百家中國哲學書電子化計劃. 2006 [cited on April 20, 2018]: Available from: <https://ctext.org/wiki.pl?if=gb&chapter=469869#p49>

의학적으로 해석해 보면, 腎間의 動氣 즉, 元氣가 命門과 三焦를 통하여 전신으로 퍼져나가는 시작점으로서 腎을 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관점은, 도가의 시각으로 『黃帝內經』을 재해석한 『難經』에서부터 강조되기 시작하였는데⁴⁶⁾ 이러한 관점이 『皇極經世書』 인용문의 배경에 깔려있다고 할 수 있다. 실제 『皇極經世書』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地有五行, 天有五緯, 地止有水火, 天復有日月者, 月爲真水, 日爲真火, 陰陽真精, 是生五行, 所以天地之數各五, 陽數獨盈於七也. 是故五藏之外又有心包, 絡命門而七者, 真心離火, 命門坎水, 五藏生焉, 精神之主, 性命之根也.⁴⁷⁾

즉, 五臟 이외에 心包[真心]와 命門이 있어서 각각 離火와 坎水가 되어 五臟을 낳고 精과 神의 주가 되며 도가에서 말하는 性과 命의 뿌리가 된다고 하였다. 이는 『難經』으로부터 이어지는 命門학설과 도가의 性命雙修를 연결시킨 것이다. 이때 命門은 三焦와 함께 腎間動氣 즉 元氣를 선포하여 下丹田과 관련이 있고 心包는 臣使之官으로서⁴⁸⁾ 心과 함께 中丹田과 관련이 있다. 邵康節은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氣가 腎에서 통제된다고 한 것이다⁴⁹⁾.

46) 滑壽. 難經本義.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p.86. : 膝下腎間動氣者, 人之生命也, 十二經之根本也, 故名曰原. 三焦者, 原氣之別使也, 主通行三氣, 經歷於五藏六府.

滑壽. 難經本義.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p.55. : 腎兩者, 非皆腎也. 其左者爲腎, 右者爲命門. 命門者, 諸神精之所舍, 原氣之所繫也, 男子以藏精, 女子以繫胞. 故知腎有一也.

47) 邵康節. 皇極經世書. 諸子百家中國哲學書電子化計劃. 2006 [cited on April 20, 2018]: Available from: <https://ctext.org/wiki.pl?if=gb&chapter=497509#p843> : 地有五行, 天有五緯, 地止有水火, 天復有日月者, 月爲真水, 日爲真火, 陰陽真精, 是生五行, 所以天地之數各五, 陽數獨盈於七也. 是故五藏之外又有心包, 絡命門而七者, 真心離火, 命門坎水, 五藏生焉, 精神之主, 性命之根也.

48)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1. p.34. : 體中者, 臣使之官, 喜樂出焉.

49) 王植. 皇極經世書解. 諸子百家中國哲學書電子化計劃. 2006 [cited on April 20, 2018]: Available from: <https://ctext.org/wiki.pl?if=gb&chapter=773241#p49> : 참고로 清代 王植의 『皇極經世書解』에서는 “人身之氣, 皆

한편 形을 머리에서 통제한다는 것은 다분히 上丹田 腦의 기능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⁵⁰⁾. 『皇極經世書』와 『仙經』의 기술을 결합하여 보면 神이 아니라 氣가 腦에 갈무리되어 形을 통제하는 것이 되는데, 여기에는 氣가 形을 이끌어서 운영한다는 생각이 전제되어 있다. 『靈樞衛氣』에서 머리에 氣가 모이는 氣街가 있으니 곧 腦에 머무는 것이라고 하였는데⁵¹⁾, 이때 氣街는 머리, 흉부, 복부, 하지 등에 氣가 모이는 곳을 말하니 氣를 운용하여 身形을 다스리는 중심이 된다. 그리고 『皇極經世書』에 의하면 腦에서 形을 통제하는 것은 下丹田에서 氣를 통제하는 것과 짝이 되는데, 아래에서 통제된 氣가 위에서 운용되면서 다시 形을 통제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腦에 모이는 氣는 形을 통제하는 데에 국한되어, 일반적으로 도가에서 말하는 上丹田의 元神 개념과 차이가 있다. 元神은 도가에서 정신의 선천적 불변의 본체인 性을 말하는데 『玉清金笥青華秘文金寶內鍊丹訣』에서는, 心이 君主之官으로서 無爲로 臨하여 움직이게 하는 것을 元神의 性이라 하고, 반대로 有爲로 臨하여 움직이게 하는 것이 欲念의 性이라고 구분하였다⁵²⁾. 이때 欲念의 性이 바로 識神에 해당한다. 따라서 氣가 모이는 腦에서 形을 통제하는 것은 有爲로 움직이는 欲念의 性에 가깝다.

神을 갈무리하는 中丹田은 『皇極經世書』에서 설명한대로 命門과 짝을 이루는 心包와 관련이 있는데, 邵康節은 中丹田의 心 또는 心包的 통제를 받는 神이 상하에 위치한 形과 氣의 交際 가운데 위치하

自下生上, 故氣統於腎, 地之象也.”라고 하였다.

50) 王植. 皇極經世書解. 諸子百家中國哲學書電子化計劃. 2006 [cited on April 20, 2018]: Available from: <https://ctext.org/wiki.pl?if=gb&chapter=773241#p49> : 참고로 清代 王植의 『皇極經世書解』에서는 “人在胞胎時, 先生頭而後生身, 故形統於首, 天之象也.”라고 하였다.

51)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1. p.236. : 請言氣街, 胸氣有街, 腹氣有街, 頭氣有街, 脛氣有街. 故氣在頭者, 止之於腦, 氣在胸者, 止之膺與背膂, 氣在腹者, 止之背膂, 與衝脈於臍左右之動脈者, 氣在脛者, 止之於氣街, 與承山踝上以下.

52) 玉清金笥青華秘文金寶內鍊丹訣. 漢リボ Kanseki Repository. 2016 [cited on April 20, 2018]: Available from: <https://www.kanripo.org/text/KR5a0241/001?query=%E5%90%9B%E4%B9%8B%E4%BD%8D%E4%B9%9F#001-007a>

여 삶의 영위를 주재한다고 본 것이다⁵³). 『黃庭內景經』에서도 心이 中部의 요체가 되어 각 臟腑의 神들을 주재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⁵⁴).

한편 中丹田은 煉氣化神과 煉神還虛로 이어지는 精氣神 煉治法의 중심이기도 하다. 즉, 煉氣化神의 과정에서 中丹田에 술을 걸고 아래의 下丹田을 화로로 삼는 小鼎爐의 大周天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仙經』과 『皇極經世書』의 인용문 사이에, 사람의 一身이 氣와 形을 갖춘 상태에서 精-氣-神의 순서로 逆修返源하는 煉治法을 설명한 『悟眞篇註』의 인용문을 배치한 것도 이를 강조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元神의 性은 원래 心 속에 있는 선천의 본체로서 無爲로서 움직이게 되며, 上丹田에 국한하여 배치된다고 할 수 없다. 오히려 心은 一身의 中部에 위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단, 內丹의 수련법이 발전하면서 大鼎爐의 小周天에서 上丹田과 下丹田을 축으로 하여 元精과 元神을 단련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上丹田의 元神 배속이 굳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仙經』의 인용문에서 나오는 三丹田의 精氣神 배속이 원래 맞는 것이든, 『東醫寶鑑』에서 이를 의도적으로 변경하였던 것이든 모두 드러내고자 하는 어떠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또한 『仙經』, 『悟眞篇註』, 『皇極經世書』 등의 인용문이 전체적으로 일관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으나, 『東醫寶鑑』에서 이들을 채택하여 편집한 것은 단순한 나열을 넘어서 인체의 상중하 三丹田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역할을 염두에 두고 인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東醫寶鑑』 「丹田有三」의 내용에 대한 이상의 분석은 여러 방증을 통한 추가 분석이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타당

성은 충분히 검토하여 제기할 필요성이 있다.

참고로 진주표는 도가의 性命論으로 보았을 때 원래 性과 命이 상하에 배치되어 각각 神과 氣가 배속되고 精이 그 가운데에 위치하는데, 煉精化氣의 과정에서 精이 강조되어 下丹田에 배속되었다고 보았다⁵⁵). 또한 한국 도가의 전통에서는 藥食보다는 호흡 위주의 胎息法을 중시하여 상중하 三丹田에 각각 神, 精, 氣가 배치되는 원래의 배속을 따르고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주장은 『東醫寶鑑』에서 인용한 『仙經』의 精氣神 배속과는 관련이 없으나, 기존 학계의 통설과는 다른 견해이므로 앞으로 공식적인 연구 발표를 통하여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仙經』의 精氣神 배속의 후대 인용

清代 顧世澄의 『瘍醫大全』(1760)에 『東醫寶鑑』에서 인용한 『仙經』의 문장이 그대로 실려 있다. 『瘍醫大全』에서는 『仙經』의 내용을 총 세 군데에서 언급하였는데, 그 가운데 두 곳이 바로 『東醫寶鑑』의 「丹田有三」과 「背有三關」이다. 인용한 부분의 전후 맥락은 『東醫寶鑑』과 다르나, 『瘍醫大全』이 간행되었을 때는 이미 『仙經』이 亡佚된 상황이므로 직접 『仙經』으로부터 인용하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 나머지 한 곳은 眞精에 대한 설명으로 洪基의 『攝生總要』(1638)에서부터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⁵⁶).

朝鮮에서는 內丹書나 醫書는 아니나 李睟光의 『芝峯類說·外道部』에서 『東醫寶鑑』에 나오는 『仙經』

53) 王植. 皇極經世書解. 諸子百家中國哲學書電子化計劃. 2006 [cited on April 20, 2018]: Available from: <https://ctext.org/wiki.pl?if=gb&chapter=773241#p49> : 참고로 清代 王植의 『皇極經世書解』에서는 “人之知覺, 皆本於心, 故神統於心, 人之象也.”라고 하였다.

54) 黃庭內景經. 諸子百家中國哲學書電子化計劃. 2006 [cited on April 20, 2018]: Available from: <https://ctext.org/wiki.pl?if=gb&chapter=373807#p31> : 心神丹元字守靈, 肺神皓華字虛成, 肝神龍煙字含明, 鬱鬱導煙主濁清, 腎神玄冥字育嬰, 脾神常在字魂停, 膽神龍曜字威明. 六腑五藏神體精, 皆在心內運天經, 晝夜存之自長生.

55) 진주표. 三丹田의 精氣神 배치를 고찰하여 유추해 본 韓醫學의 整體性-道家 性命論과 儒家 魂魄說을 중심으로(新增補對譯東醫寶鑑). 서울. 法仁文化社. 2017. p.2583.

56) 洪基. 攝生總要. 諸子百家中國哲學書電子化計劃. 2006 [cited on April 20, 2018]: Available from: <https://ctext.org/wiki.pl?if=gb&chapter=467679#p15> : 八味地黃丸. 治命門火衰, 不能生土, 以致脾胃虛寒, 飲食少思, 大便不實, 臍腹疼痛, 夜多漩溺, 或陰盛格陽, 內眞寒而外假熱等證. 即七味丸加熟附子一兩. 切片, 微火焙. 腎有兩枚, 皆屬於水, 雖有左右之分, 初無水火之別, 考之『內經』, 昭然可覽. 『仙經』曰兩個一般無二樣, 中間一點是眞精. 又曰兩腎中間一點明. 夫眞精者, 明也, 即命門相火也. 命門乃穴名, 而其穴在兩腎中間, 蓋一陽生二陰之間, 所以成乎坎, 而象天之北也. 經曰少火生氣, 人無此火, 生化之源幾乎息矣. 非附子健悍, 不足以嘘既槁之陽春. 王太僕曰益火之原, 以消陰翳, 此方是也.

의 精氣神 배속을 인용하고 있다⁵⁷). 『東醫寶鑑』 간행 이전에 朝鮮에서는 內丹書들이 유행하였고, 朝鮮 전기의 醫書인 『鄉藥集成方』, 『醫方類聚』 등에도 內丹術의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⁵⁸). 특히 『黃庭經』은 醫道合一을 지향하는 內丹書로서 『東醫寶鑑』에 많은 영향을 주었는데⁵⁹) 『東醫寶鑑集例』에서 이른바 道精醫粗를 말하면서 『黃庭經』을 대표적인 道家書로 꼽고 있다⁶⁰). 『東醫寶鑑』은 存思守神의 上清派에 뿌리를 둔 內丹 중심의 양생법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東醫寶鑑』 간행 전후의 朝鮮의 도가에서도 주로 南宗 사상을 기반으로 하여 性命雙修를 추구하였다. 이러한 배경 정황에도 불구하고 『仙經』의 精氣神 배속은 『東醫寶鑑』 이후 전문 도가 문헌이 아닌 일부의 서적에서 인용되었을 뿐이다.

III. 結論

『東醫寶鑑』 「丹田有三」에서 『仙經』을 인용하여 상중하 三丹田에 각각 氣, 神, 精을 배속한 것에 대하여 기존의 연구자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하였다. 이러한 상중하 배치가 기존의 일반적인 도가 문헌에

서는 나타나지 않으며 『東醫寶鑑』의 다른 부분에서는 통상적인 배치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를 誤記로 보는 주장이 있었다. 또한 중단전인 心에 神이 배속된 것이 『東醫寶鑑』의 醫書로서의 특성을 드러낸 것이라는 주장도 있었다. 그러나 전자의 경우는 문장 가운데 일부만 글자가 바뀐 것이 아니라 上丹田과 中丹田의 神과 氣가 서로 바뀐 것이므로 단순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바꾸었거나 아니면 원래 『仙經』의 문장이 맞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진다. 한편 후자의 경우는, 주로 한의학의 心藏神 개념을 바탕으로 神의 中丹田의 배속을 설명하려 하였으나 上丹田과 下丹田을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석하지는 못하였다.

『仙經』의 인용문에 이어지는 『悟眞篇註』의 氣形 및 精氣神 煉治法의 내용과 邵康節의 神氣形 배치가 그 구성이 서로 연결되는 것에 착안하여 『仙經』의 三丹田 精氣神 배속도 이러한 구성의 맥락상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즉, 腎이 藏精하는 下丹田에서 氣를 통제하는 것은 腎間의 動氣 즉, 元氣가 命門과 三焦를 통하여 전신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上丹田에 氣가 갈무리 되어 形을 통제한다는 것은 氣가 形을 이끌어서 운영한다는 전체 속에서 腦의 기능과 관련하여 설명하고자 한 것으로, 煉氣化神과 煉神還虛를 추구하는 心의 본체인 元神의 성과는 차별된다. 中丹田에서 神을 갈무리한다는 것은, 『皇極經世書』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離火의 心包와 坎水命門이 짝을 이루어 精과 神의 주가 되며 도가에서 말하는 性과 命의 뿌리가 된다는 생각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元神의 성이 心의 본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또한 煉氣化神 과정에서 中丹田에 술을 곁고 아래의 下丹田을 화로로 삼는 大周天의 小鼎爐 개념과 연관되어 있다. 또한 神이 中丹田의 心 또는 心包와 관련되어 있으며, 形과 氣의 交際 가운데 위치하여 삶의 영위를 주재한다고 본 것이다.

『仙經』의 精氣神 배속의 내용은 후대 전문 도가 문헌에는 많이 보이지 않고 일부 醫書와 기타 서적에만 인용되어 중요하게 인식되지 않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仙經』의 내용이 단순한 誤記라는 추

57) 李晔光. 芝峯類說. 한국고전종합DB. 2013 [cited on April 20, 2018]: Available from: [136](http://db.itkc.or.kr/dir/item?itemId=GO#/dir/node?dataId=ITKC_GO_1304A_0200_020_0020&solrQ=query%E2%80%A0%E8%97%8F%E6%B0%A3%E4%B9%8B%E5%B A%9C%$solr_sortField%E2%80%A0EA%B7%B8%EB%A 3%B9%EC%A0%95%EB%A0%AC_s%20%EC%9E%90% EB%A3%8CID_s$solr_sortOrder%E2%80%A0$solr_secl d%E2%80%A0GO_AA$solr_toalCount%E2%80%A01$sol r_curPos%E2%80%A0$solr_solrId%E2%80%A0BD_IT KC_GO_1304A_0200_020_0020 : 仙經曰腦爲髓海上丹田, 藏氣之府也. 心爲絳宮中丹田, 藏神之府也. 膻下三寸爲下丹田, 藏精之府也. 又曰背後有三關, 腦後曰玉枕關, 夾脊曰轆轤關, 水火之際曰尾閭關, 皆精氣升降往來之道路. 按道經所謂丹田, 多指下丹田而言. 唐劉虛白嗜酒有詩曰知酒醉鄉無戶稅, 任他荒却下丹田是已.</p><p>58) 成昊俊. 東醫寶鑑의 철학적 연구-儒學과 道教사상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대학원. 2001. p.83.</p><p>59) 成昊俊. 東醫寶鑑의 철학적 연구-儒學과 道教사상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대학원. 2001. p.25.</p><p>60) 許浚. 新增補對譯東醫寶鑑. 서울. 法仁文化社. 2017. p.48. : 黃庭經有內景之文, 醫書亦有內外景象之圖, 道家以清靜修養爲本, 醫門以藥餌鍼灸爲治, 是道得其精, 醫得其粗也.</p></div><div data-bbox=)

정을 넘어서, 『東醫寶鑑』 「丹田有三」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구성과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仙經』의 精氣神 배속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한 것이다. 도가 內丹의 역사 속에서 상중하 三丹田에 대하여 精氣神을 배속하면서 각각의 의미와 역할이 보다 분명하게 인식되었던 것과 같이, 『東醫寶鑑』에 인용된 『仙經』의 精氣神 배속에 대한 새로운 해석의 시도는 향후, 도가 內丹學의 내용들을 기반으로 하여 인체 精氣神의 상호 전환과 養生의 방법 및 목표에 대한 韓醫學의 인식을 넓혀 나가는 데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본다. 본 연구의 주제와 대상에 대하여 아직 직접적인 근거 자료가 많지 않으므로 향후 한의학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다양한 방면의 후속 연구를 통하여 이 문제에 접근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References

1. Chen ZX et al.. Wuzhenpianjisanzhuhekan. Taibei. Ziyouchubanshe. 1962. p.10.
 陳致虛 외. 悟眞篇集三註合刊. 臺北. 自由出版社. 1962. p.10.
2. Daoshuquanji(Haiyucungujicongkan). Beijing. Zhongguoshudian. 1990.
 道書全集(海玉邨古籍叢刊). 北京. 中國書店. 1990.
3. Heo J. Dong-uibogam. Seoul. Beopinmunhwasa. 2017.
 許浚. 新增補對譯東醫寶鑑. 서울. 法仁文化社. 2017.
4. Hong WS. Jeonggyohwangjenaegyongsomun. Seoul. Publisher of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1981.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1.
5. Hong WS. Jeonggyohwangjenaegyongyeongchu. Seoul. Publisher of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1981.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1.
6. Hua S. Nanjingbenyi. Beijing. People's Medical Publishing House co. 1995.
 滑壽. 難經本義.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7. Jin JP. Study on the Identity of Korean Medicine through Arrangement of Jeong-Gi-Sin(Dong-uibogam). Seoul. Beopinmunhwasa. 2017.
 金주표. 三丹田의 精氣神 배치를 고찰하여 유추해 본 韓醫學의 整體性-道家 性命論과 儒家 魂魄說을 중심으로(新增補對譯東醫寶鑑). 서울. 法仁文化社. 2017.
8. Li JZ. Xingmingguizhibaihuajie. Beijing. People's Sports Publisher. 1993.
 李建章. 性命圭旨白話解. 北京. 人民體育出版社. 1993.
9. Li YG. Neidan. Seoul. Seonggyungwan University Publisher. 2006.
 이원국 저, 김낙필 외 역. 내단. 서울.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06.
10. Liu A. Huannanzi. Shanghai. Shanghaijichubanshe. 1989.
 劉安. 淮南子.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9.
11. Lu BW. Lushichunqiu(Zhuzijicheng6). Shanghai. Shanghaihudian. 1986.
 呂不韋. 呂氏春秋(諸子集成6). 上海. 上海書店. 1986.
12. Rao ZY. Laozixiangerzhujiaozheng. Shanghai. Shanghaijichubanshe. 1991.
 饒宗頤. 老子想爾注校證.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1.
13. Wang M. Taipingjinghejiao. Beijing. Zhonghua Book co. 1960.
 王明. 太平經合校(上冊). 北京. 中華書局. 1960.
14. Wang M. Baopozineipianjiaoshi. Beijing. Zhonghua Book co. 1986.
 王明. 抱朴子內篇校釋. 北京. 中華書局. 1986.

15. Zeng Z. Daoshu. Shanghai. Shanggujichubanshe. 1990.
曾慥. 道樞.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0.
16. Zhang JB. Leijing. Seoul. Beopinmunhwasa. 2006.
張介賓. 懸吐註釋類經. 서울. 法仁文化社. 2006.
17. Zhang JF. Yunjiqian(1). Beijing. Zhonghua Book co. 2003.
張君房. 雲笈七籤(1). 北京. 中華書局. 2003.
18. Zhang JF. Yunjiqian(3). Beijing. Zhonghua Book co. 2003.
張君房. 雲笈七籤(3). 北京. 中華書局. 2003.
19. Che W. A Study on the Theoretical Value and Influence of Xujun's 『Dongyibaojian』. 中央民族大學大學院. 2011. Graduate School of Minzu University of China. 2011.
車武. 許浚『東醫寶鑑』의理論價値及其影響研究. 中央民族大學大學院. 2011.
20. Kim SY. The Study of Three-DanJeon and Jeong-Qi-Sin. J. The Studies of Taoism and Culture. 2009. 31.
金洙佚. 精氣神과 三丹田에 關한 研究-人體上 相互 配置 問題를 中心으로. 도교문화연구. 2009. 11.
21. Seong HJ. A Study on the Philosophy of Dong-uibogam. Seonggyungwan Graduate School. 2001.
成昊俊. 東醫寶鑑의 철학적 연구-儒學과 道教 사상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대학원. 2001.
22. Sun YP. The Influence of Taoism's Curing Method to Korean Medicine in Dongyibaojian. Religious Studies. 2015. 34(3).
孫亦平. 從『東醫寶鑑』看道教養生論對東醫學的影響. 宗教學研究. 2015. 34(3).
23. Wang JK. Xianjingkaolue. Religious Studies. 1997. 16(2).
王家葵. 仙經考略. 宗教學研究. 1997. 16(2).
24. Yu ZM. Dantianmingshikao. Chinese J. Basic Medicine in TCM. 2013. 19(1).
于智敏. 丹田名實考. 中國中醫基礎醫學雜誌. 2013. 19(1).
25. Chen ZX. Shangyangzjizindandaiyaoshangyao· Kanripo Kanseki Repository. 2016 [cited on April 20, 2018]: Available from: <https://www.kanripo.org/text/KR5d0090/004?query=%E9%A0%86%E5%89%87%E6%88%90%E4%BA%BA#004-007b>
陳致虛. 上陽子金丹大要上藥· 漢リボ Kanseki Repository. 2016 [cited on April 20, 2018]: Available from: <https://www.kanripo.org/text/KR5d0090/004?query=%E9%A0%86%E5%89%87%E6%88%90%E4%BA%BA#004-007b>
26. Hong J. Sheshengzongyao. Chinese Text Project. 2006 [cited on April 20, 2018]: Available from: <https://ctext.org/wiki.pl?if=gb&chapter=467679#p15>
洪基. 攝生總要. 諸子百家中國哲學書電子化計劃. 2006 [cited on April 20, 2018]: Available from: <https://ctext.org/wiki.pl?if=gb&chapter=467679#p15>
27. Huangjingneijingjing. Chinese Text Project. 2006 [cited on April 20, 2018]: Available from: <https://ctext.org/wiki.pl?if=gb&chapter=373807#p31>
黃庭內景經. 諸子百家中國哲學書電子化計劃. 2006 [cited on April 20, 2018]: Available from: <https://ctext.org/wiki.pl?if=gb&chapter=373807#p31>
28. Lee SG. Jibongryuseol. DB of Korean Classics. 2013 [cited on April 20, 2018]: Available from: http://db.itkc.or.kr/dir/item?itemId=GO#/dir/node?dataId=ITKC_GO_1304A_0200_020_0020&solrQ=query%E2%80%A0%E8%97%8F%E6%B0%A3%E

- 4%B9%8B%E5%BA%9C\$solr_sortField%E2%80%A0%EA%B7%B8%EB%A3%B9%EC%A0%95%EB%A0%AC_s%20%EC%9E%90%EB%A3%8CID_s\$solr_sortOrder%E2%80%A0\$solr_secId%E2%80%A0GO_AA\$solr_toalCount%E2%80%A01\$solr_curPos%E2%80%A000\$solr_solrId%E2%80%A0BD_ITKC_GO_1304A_0200_020_0020
29. Shao KJ. Huangjijingshishu. Chinese Text Project. 2006 [cited on April 20, 2018]: Available from: [http://db.itkc.or.kr/dir/item?itemId=GO#/dir/node?dataId=ITKC_GO_1304A_0200_020_0020&solrQ=query%E2%80%A0%E8%97%8F%E6%B0%A3%E4%B9%8B%E5%BA%9C\\$solr_sortField%E2%80%A0%EA%B7%B8%EB%A3%B9%EC%A0%95%EB%A0%AC_s%20%EC%9E%90%EB%A3%8CID_s\\$solr_sortOrder%E2%80%A0\\$solr_secId%E2%80%A0GO_AA\\$solr_toalCount%E2%80%A01\\$solr_curPos%E2%80%A000\\$solr_solrId%E2%80%A0BD_ITKC_GO_1304A_0200_020_0020](http://db.itkc.or.kr/dir/item?itemId=GO#/dir/node?dataId=ITKC_GO_1304A_0200_020_0020&solrQ=query%E2%80%A0%E8%97%8F%E6%B0%A3%E4%B9%8B%E5%BA%9C$solr_sortField%E2%80%A0%EA%B7%B8%EB%A3%B9%EC%A0%95%EB%A0%AC_s%20%EC%9E%90%EB%A3%8CID_s$solr_sortOrder%E2%80%A0$solr_secId%E2%80%A0GO_AA$solr_toalCount%E2%80%A01$solr_curPos%E2%80%A000$solr_solrId%E2%80%A0BD_ITKC_GO_1304A_0200_020_0020)
30. Shao KJ. Huangjijingshishu. Chinese Text Project. 2006 [cited on April 20, 2018]: Available from: <https://ctext.org/wiki.pl?if=gb&chapter=469869#p49>
- 邵康節. 皇極經世書. 諸子百家中國哲學書電子化計劃. 2006 [cited on April 20, 2018]: Available from: <https://ctext.org/wiki.pl?if=gb&chapter=469869#p49>
31. Wang Z. Huangjijingshishujie. Chinese Text Project. 2006 [cited on April 20, 2018]: Available from: <https://ctext.org/wiki.pl?if=gb&chapter=497509#p843>
- 王植. 皇極經世書解. 諸子百家中國哲學書電子化計劃. 2006 [cited on April 20, 2018]: Available from: <https://ctext.org/wiki.pl?if=gb&chapter=773241#p49>
32. Xiao TZ. Jindandaicheng. Kanripo Kanseki Repository. 2016 [cited on April 20, 2018]: Available from: <https://www.kanripo.org/text/KR5a0265/002?query=%E5%BF%83%E7%88%B2%E4%B8%AD%E7%94%B0#002-006b>
- 蕭廷芝. 金丹大成. 漢リポ Kanseki Repository. 2016 [cited on April 20, 2018]: Available from: <https://www.kanripo.org/text/KR5a0265/002?query=%E5%BF%83%E7%88%B2%E4%B8%AD%E7%94%B0#002-006b>
33. Yuqingjinsiqinghuamiwenjinbaoneiliandanjue. Kanripo Kanseki Repository. 2016 [cited on April 20, 2018]: Available from: <https://www.kanripo.org/text/KR5a0241/001?query=%E5%90%9B%E4%B9%8B%E4%BD%8D%E4%B9%9F#001-007a>
- 玉清金笥青華秘文金寶內鍊丹訣. 漢リポ Kanseki Repository. 2016 [cited on April 20, 2018]: Available from: <https://www.kanripo.org/text/KR5a0241/001?query=%E5%90%9B%E4%B9%8B%E4%BD%8D%E4%B9%9F#001-007a>